

16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소리를 배달하는 아이들



소리를 배달하는 아이들

소리는 늘 유아 가까이 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등 특별한 소리가 있다.
 어느 날 유아는 매일 듣는 소리, 소리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
 소리를 탐색하는 놀이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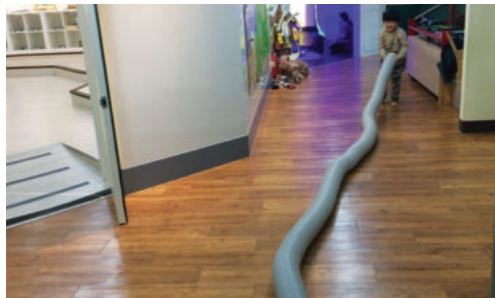
악기로 놀이하던 유아가 소리 자체와 성질에 관심을 가져 기록하게 되었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5세 유아	2019년 4월, 놀이 시간	소리 놀이방, 계단, 교실

평소 악기장 속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던 악기를 유희실에 꺼내 놓았더니 유아가 소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에 소리 놀이방이 만들어졌다. 소리 놀이방에는 유아들이 악기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악기를 벽에 매달아 주기도 하고 선반에 놓아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긴 플라스틱 관도 함께 비치해 두었다. 유아의 관심이 악기에서 긴 플라스틱 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유아는 플라스틱 관의 한쪽 입구에 입을 대고 “아!” 하고 소리를 질러 본다. 반대쪽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던 유아는 “지하 소리 놀이방에서 1층 교실까지 더 멀리 소리를 배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 “소리가 엄청 빨리 뛰어가.”
- “소리가 공기를 타고 날아가.”
- “소리가 물을 타고 가는 것 같아.”
- “소리가 손을 잡고 움직여.”



“공기는 어디든지 다 가. 아주 작은 틈도 통과할 수 있어. 그 틈을 다 막을 수 있다면 (소리가 새지 않고 잘 전달이 될 거야)”



유아는 소리를 배달하자고 하며 소리 놀이방에 있던 관을 계단으로 올리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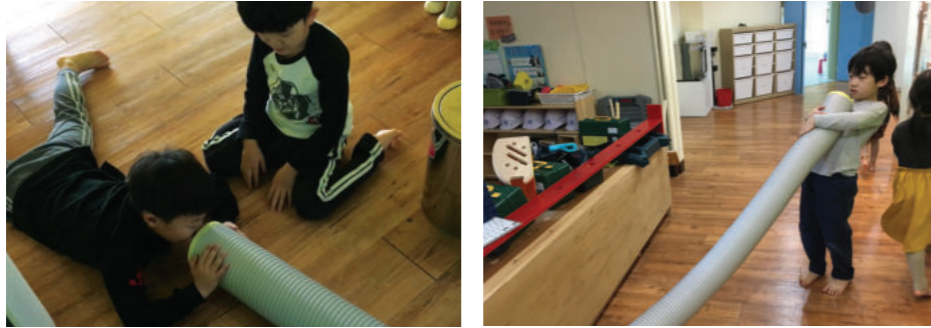
- “피자 배달처럼 우리 교실까지 옮기자.”
- “그럼 관이 엄청 길어야 해.”
- “우리 관을 더 찾아서 진짜 길게 연결해 보자!”

소리를 길게 전달하자는 유아의 전략은 두 가지이다.

- 전략1 소리 관을 길게 연결하자
- 전략2 소리가 새어 나가는 틈을 막자



유아들은 소리를 교실까지 전달하려고 관을 끌고 가지만 관이 부족하여 계단 중간에서 끝이 난다.
유아는 교실에 모여 소리가 전달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꺼내 놓았다.



우주: 소리가 걸어서 올라갔나?
호서: 색 철사로 하면 공기가 다 나가잖아.
우주: 비행기를 타고 왔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왔나?
주형: 소리는 가벼워서 날 때 뭐든지 필요 없어.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소리 배달 놀이를 **몸의** 감각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소리가 전달되는 현상을 유아는 몸, 귀, 손으로 **느끼면서 상상**한다. “소리가 엄청 빨리 뛰어가.”, “공기를 타고 날아가.”, “물을 타고 가는 것 같아.” 소리를 교실까지 배달하자는 유아의 놀이에는 난센스가 넘쳐 난다. 유아는 교실에 모여 자연스럽게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유아들은 소리가 전달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꺼내 놓았다. 소리 관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소리도 물체를 따라서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아의 **탐구**는 각자의 **상상**을 타고 **지속적으로** 합쳐지면서 계속된다. “소리가 걸어서 올라갔나?”, “비행기를 타고 왔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왔나?”, “소리는 가벼워서 날 때 뭐든지 필요 없어.” 소리 관을 연결하여 소리를 전달하는 놀이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더해져서 소리 배달 놀이는 더 **재미**있어진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새로운 놀이 자료를 만났을 때, 몸으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놀이를 변형해 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 지원의 특징

유아가 지하에서 1층 교실로 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유아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상상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